

# Nuestra Señora del Rosario

## 2020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10 월 7 일에 우리는 기쁘게 묵주기도의 모후의 아름다운 축일을 지냅니다. 우리 도미니칸들에게 이 축일은 성모님에 관하여, 성모님의 영광과 가르침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성모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 아드님의 육화와 수난과 부활에 결합되어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묵주기도가 다시 널리 퍼지고 있고 다시 그것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곧 신자들, 젊은이들과 덜 젊은이들, 평신도들과 축성된 이들의 손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가 교회에 남긴 많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이들이 손에 묵주를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범으로, 이러한 신심 행위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던 시대에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게 동기와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동정 마리아께 대한 모든 신심들 가운데, 묵주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의 특징이고 그들을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복음의 신비들을 살게 하고,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복음적인 기도이고, 묵상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고통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기를 가르칩니다.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기도는... 수많은 성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교도권이 장려한 기도입니다. 그 단순함과 심오함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를 지닌 기도이며, 성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며, 그 부분들의 단순함으로 복음 메시지 전체를 요약합니다”(1 항).

실제로, 묵주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젖어 살도록 도와줍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삶, 말씀, 모범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해 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단순한 이들이나 학식이 있는 이들이나, 성인들이나 죄인들이나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적은 준비가 필요하면서도 마음과 정신에 효과를 발하는 기도는 다시 없습니다.

바로 6 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주기도는 전례와 상충되지 않으며 전례를 뒷받침합니다. 전례로 이끌어주고 전례를 상기시키며, 내적으로 온전히 전례에 참여하게 하고 일상 생활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기 때문입니다”(RVM, 4). 관상은 묵주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충실하고 겸손한 묵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 성화와 사도직의 여정을 끊임없이 성모님께 맡깁시다.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는, 전정한 복음화의 일 전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성인들의 예가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들 10 월이 좋은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주기도가 강한 형제애로 우리를 결합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 되시기 바랍니다.

*Sor Ma Asunción González*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

